

작년 육아휴직 4명 중 1명은 아빠



▲ 2021년 육아휴직자의 약 1/4은 남성이다.
사진=shutterstock

지난해 육아휴직자 4명 중 1명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통계청이 이날 '2021년 육아휴직통계'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17만3,631명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다. 육아휴직자 수는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았지만 최근 5년 증가율이 5.2%였던 것을 감안하면 증가율은 오히려 크게 줄었다. 통계청은 최근 출생아 수가 빠르게 감소하는 경향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자의 24.1%는 남성 육아휴직자로 집계됐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은 지난해 처음 20%를 넘겼는데 올해도 전년대비 1.5%포인트 늘어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4만1,910명으로 같은 기간 8.0% 늘었다. 여성 육아휴직자 수는 전년 대비 1.1% 줄어든 13만1,721명으로 집계됐으며 비중(75.9%)도 줄었다.

육아휴직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남성의 경우 71.0%가, 여성은 62.4%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 대기업 소속 직장인이었다. 4명 이하 소기업에 종사하는 육아휴직자 비율은 남성의 경우 3.2%, 여성은 4.9%에 불과했다.

최근 10년간(2012~2021년) 출생한 아이(만 0세~만 8세)들의 부모를 살펴보면 엄마는 자녀가 갓 태어난 만 0세(81.9%) 때, 아빠는 자녀가 초등학교에 들어갈 때인 만 7세(20.1%) 때 육아휴직을 가장 많이 사용했다.

생활고로 부업 뛰는 가장 수 '역대 최고'

올해 부업에 나서는 가장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저임금 공공 일자리가 급격하게 늘면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 관련 부업 근로자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3분기 기준 가정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가구주)인 부업자는 36만8,000명으로 전체 부업자(54만7,000명) 가운데 67.3%를 차지했다.

지난 5년간(2017~2022년) 1~3분기 평균 전체 부업자 수는 33.1%, 가구주 부업자 수는 41.0% 증가했다. 전체 부업자 중 가구주 비율은 2017년 63.5%에서 2022년 67.3%로 늘었다. 전경련은 고용 안정성이 낮은 고령층과 청년층의 부업 활동 비율이 크게 늘



▲ 경기지역의 한 채용 게시판을 살펴보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었다고 분석했다.

업종별로 보면 지난 5년간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부업자 비율은 지난 5년간 2만2,000명이 늘어 62.9% 나 증가했다. 이어 건설업은 40.0%(8,000명↑), 도·소매업은 24.5%(1만3,000명↑) 상승했다.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저임금 공공 일자리가 급격히 늘면서 청년이나 노인들이 부업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

숙박 및 음식점업과 제조업은 각각 6.3%(2,000명) 감소했다.

숙박 및 음식업은 코로나19 직격탄으로 일자리 자체가 줄어 부업자 수도 덩달아 감소했으며 제조업은 성장둔화, 해외 일자리 유출 등으로 전체 일자리가 감소해 부업자 수도 함께 줄었다는 분석이다.

서울 아파트값 최대 하락폭 경신

지난주 서울 아파트 값이 역대급 낙폭을 갈아치워 30주 연속 내리막길을 이어갔다. 겨울철 비수기와 금리 인상 여진으로 매매는 물론 전세 시장도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22일 '파이낸셜뉴스'가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12월 셋째주(19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0.72% 하락했다. 2012년 5월 주간 시세 조사 이래 가장 큰 낙폭을 기록한 직전 주(-0.65%) 이후 한주 만에 또다시 최대 낙폭을 경신했다. 이로써 서울 아파트 값은 5월 말이후 30주째 하락세다.

부동산원은 "연말·겨울 비수기로 접어들면서 추가 하락 우려에 따라 매수 문의는 급감한 상황"이라며 "매도자 사정에 따른 급매 물건만 간헐적으로 거

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값은 0.91%, 전국 아파트값은 0.73% 하락하며 조사 아래 최대 하락세가 이어졌다. 지방은 세종(-1.52%), 대구(-0.83%), 대전(-0.77%), 경남(-0.66%), 부산(-0.61%), 울산(-0.53%) 등이 하락했다.

전세 시장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금리 인상 여파로 신규이동 수요가 감소하며 역대급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국은 0.90% 떨어지며, 지난주(-0.83%)보다 낙폭이 확대됐다. 수도권(-1.21%)과 서울(-1.13%)도 낙폭이 확대로 부동산원 조사 아래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다. 지방은 세종(-1.51%), 대구(-1.12%), 대전(-0.79%), 울산(-0.69%), 부산(-0.66%), 경남(-0.60%) 등이 하락했다.

통증 전문
치료 병원

오렌지[백] 한방·척추병원

Baek Chiropractic-Acupuncture, Inc

"29년의 임상경험과 한방/척추의 정확한 진단"으로, 통증의 원인을 파악하고 치료해 드립니다.
침, 부황, 한약/보약, 척추교정, 엑스레이, 각종물리치료를 모두 한곳에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메디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서울/세종/대한)
센트럴 헬스, 웰케어
지정병원 승인필요 없음
Scan, Care 1st
Clever Care, Kaiser
Humana, Blue cross
Blue Shield, AARP
일반 메디케어 파트 B

각종 보험

오바마 케어
Health Net, Blue cross
Blue Shield, Kaiser
Aetna, Cigna
United Health Care
HMO- 주치의 허가 또는
승인 없이도
치료 가능합니다
*예외가 있으니 전화 확인 요망

교통사고

사고 보험 처리
도와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주세요!

치료 내용

두통, 어깨, 목, 허리, 무릎, 발목,
저림, 오십견, 안면마비, 우울증,
수면장애, 감기, 갱년기 증상 등

진료 시간 월~금 9am~6pm / 토 9am~12pm
점심시간 12pm~1pm / 목 closed

예약/상담 714.530.7001

9681 Garden Grove Bl., Suite 101
Garden Grove, CA 92844(모란각 식당 옆)



Dr. 백사온
한의사, 척추신경의사
SCU 척추 의대 졸업
South Baylo 한의대 졸업

* 그 외 보험도 전화로 확인해 드립니다. (보험 없으신 분들을 위한 특별 플랜도 있습니다.)